이슈를 찾아서

과거사 진상규명은 올바른 教訓 찾는데 意義를 둬야

대다수 警友들 |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감안돼야 하며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면 안돼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6·25전쟁 직후 '보도연맹(保導聯盟)원 학살 의혹 사건'등 경찰관련 사건 1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그 진상 규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다수의 警友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도 안된다는 여론이다.

경찰청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객관적·전문적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민·경 합동으로 구성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경찰청 차장과 수사, 경비, 정보, 보안국장 등 경찰 5명, 학계와 NGO 등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맡기로 하는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회차원의 특별기구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진상조사 대상사건 선정 및 조사팀을 편성하고, 진상조사팀의 조사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조사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결정,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게 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최근 출범한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 모습.

한편 위원회 산하에 지원팀과 조사1·2팀을 구성하고, 민간조사관 8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조사1·2팀장도 민간 조사관이 맡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 시작 뒤 2년'으로 정했으나, 위원회 자체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사를 위한 민간조사관은 위원회에서 선발 심사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사건은 지난 45년 경찰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관련 과거 의혹사건 중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으로 ▲경찰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거나, 억울한 피해 등을 발생케 한 사건, ▲시민단체 등에서 진상규명 대상으로 거론하는 사건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중 진상규명이 미흡한 경찰관련 사건 등이다.

즉, 1970·80년대 시국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민청련)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일명 '깃발') 사건과, 90년대 이후 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자주대오 ▲진보의련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 ▲보도연맹원 학살 관련 경찰 개입 의혹 사건 ▲대구 폭동 사건 ▲여순 사건 당시 나주부대 사건 등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의 의혹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진상·피해상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면, 경찰청장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결과를 공개하고 다시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다짐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명예회복 등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그 발족과 더불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의혹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에는 2차 회의를 갖고 운영 규칙안을 심의하는 한편 세부 추진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오는 2월 중 조사관을 선발해 본격적인 조사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 8명, 민간조사관 8명 등 2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인데,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배제하는 등 조사관 개개인의 전력을 고려해 신중히 선발되어야 하며, 사건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시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 행위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고가서는 안되며, 더우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도 아니된다는 것이 다수 경우들의 의견이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백형조 원광대 교수는 『이번 경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이 개인의 허물을 잡기보다는 과거 경찰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 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교훈을 찾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당시 대공분야에서 근무했던 警友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진실과 상이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허준영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경우회 활성화에 앞장설 뜻 밝혀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 질의에 답변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 시절 가진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서재관의원의 경우회 관련 질문에 대해 경우회원 취업문제, 복지문제, 경우회관 마련문제, 전현직 유대강화 문제 등에 공감을 가지는 한편 경우회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국회행자위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열린 우리당 서재관 의원이 경우회 문제와 관련 『경우회는 등록된 회원만도 65만이 되는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으로,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한데 재향군인회 등 타 단체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고보조도 받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보장된 단체인 만큼 여기도 어떤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직의 수장이 된다면 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허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금 경우회 회원이 전국에 120만인데 경우회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찰병원 무료진료 문제, 취업 알선 문제, 현직과의 유대 증진 문제도 중요하며, 특히 경우회관 같은 것도 앞으로 정말 전.현직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우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굿 데이

경찰관이 불러온 섬마을 독서바람

어불도에 독서 바람이 일고 있다. 해양 경찰관의 헌신적인 봉사속에 가능해진 요즘 섬마을 풍경이다.

최근 완도해경 어불도출장소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비롯 중.고등학생 등 모두 23명의 학생이 있는 어불도는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아 신속한 정보 습득도 어려운 낙도다.

또 주위에 도서관 등 기초적인 문화시설도 없어 섬 주민과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어불도출장소 직원들이 나섰다.

경찰관들은 지난달부터 섬에서 도선과 승용차를 번갈아 타고 1시간 30여분이 걸리는 해남읍 문화예술회관 도서관까지 직접 오가며 학생들이 읽기를 원하는 책들을 빌려다 간접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불도출장소장 박석정 경사는 "기초적인 독서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책을 빌려주는 활동을 실시하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불도에는 72가구에 27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왕년 유도스타 정성숙 경찰관과 화촉

매트의 최강자로 이름을 날렸던 왕년의 여자 유도스타 정성숙(33세) 포항시청 코치가 현직 경찰관과 웨딩마치를 올렸다.

정성숙 코치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내 결혼문화회관에서 김정행(용인대 총장) 대한유도회장의 주례로 서울 남부경찰서 외사과 고영훈(35세)경장과 화촉을 밝혔다.

정 코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올린 96년 애틀랜타올림픽 66㎏급 금메달리스트 조민선과 90년대 한국 여자 유도를 양분했던 스타 출신.

아테네올림픽 때 여자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활약했던 정 코치는 올림픽 직후 친구 소개로 고 경장을 만나 6개월 여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정 코치는 "자상하고 한결같은 마음이 믿음직하다"며 예비 남편을 칭찬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으로 5박 6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서울 신림동에 신방을 차린다.

국민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난해 국제심판 B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 코치는 결혼 후 모교인 용인대 시간강사로 나서 경호학과의 경호무술과 호신술을 강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설명회, 높은 관심 반영

지난달 25일 오전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설명회에는 경찰 등 300여명이 빼곡이 자리를 메워 앞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양영철 지방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인구 등 치안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소요인력의 반은 국가경찰에서 나머지는 새로 뽑겠다는 계획"이라며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문제나 각 자치단체 마다 따로 복장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1년간만 시범실시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레임덕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 임기내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차차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이 끝나자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소속 참석자들은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다 반납할 경우 인력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공무원은 6급까지 자동승진하고 경찰은 그간 시험으로 승진했는데 직급체계는 어떻게 조정되느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양 위원장은 "국가 경찰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된다"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직급체계를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총경과 서기관을 맞추는 문제 등을 두고 논의중이며 국가경찰이 손해를 보며 자치경찰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외에 산간 등 취약지역 문제, 1개 경찰서가 여러 자치단체를 관할해온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양 위원장은 "시범지역 중 취약지역을 선정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문제는 시도치안협의회 내부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논의중', '협의중'이라는 설명과 답변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으며 양 위원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경찰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운영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시 피해자의 신원노출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을 마련,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합차량 등의 내부를 개조해 만들어지는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은 추가 피해를 두려워해 경찰서내 조사를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 피해자 조사를 벌이게 된다. 경찰은 올 상반기 중 시범 경찰서를 선정해 운영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조사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초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묵 서울 경찰청장은 지난 1월 26일 부임 인사차 구홍일 경우회장을 예방하고 30여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구홍일 경우회장과 이기묵 서울 경찰청장은 경우회 활성화 및 경찰발전,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에 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신년 인사회 축하해 주신 분

◇사무실 비품 기증자

최기문 前경찰청장(사랑방 TV 및 화환)
허준영 경찰청장(사랑방 컴퓨터 및 화환)
박종환 경찰청 前총무과장(임원실 거울)
전재곤 자문위원회 위원장(월력)
김정웅 서울경우회 회장(사랑방 기둥시계)
황호항 前경우회 사무총장(서예 5점)
박기상 우신건설(주) 사장(회의용 탁자)
손재익 서희건설(주) 사장(회의용 탁자)

◇축하 화환 보내주신 분
(현직은 1월 18일 현재 직위임)

김석기 경북지방경찰청장
이희경 강원지방경찰청장
김대식 대구지방경찰청장
조선호 충북지방경찰청장
최광식 전남지방경찰청장
배성수 전북지방경찰청장
한진호 인천지방경찰청장
송인동 충남지방경찰청장
문경호 경찰종합학교 학교장
이병진 前중앙학교 학교장
유내형 前델타항공 사장
이동교 경기경우회 회장
정순자 광주여경회 회장
김만호 인천경우회 회장
김선화 성동경우회 회장
이장오 광주경우회 회장
김남석 강원경우회 회장
장석조 충남경우회 회장
박정호 부산경우회 회장
신동호 기능경우회 회장
남봉만 남대문경우회 회장
정정원 전북경우회 회장
이재춘 충북경우회 회장
김정웅 서울경우회 회장
김우현 경우산악회 회장
이용팔 대구경우회 회장
황보복수 경북경우회 회장
조규학 해경경우회 회장
홍세기 민생치안연구소 이사장
임은태 경찰선교회
이대길 도로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금동준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구재태 前충남경찰청장
전용찬 前 강원경찰청장
최중락(주) 에스원 고문
김경희(故 김원환 前경우회장 가족)
김봉진 충북경우회
이윤조 삼성고문
이용제 충의회중앙회 회장
이승용
장재환
홍 륵
목민회 회원
이상달 기흥CC 사장
오기창 용창산업 회장
애수근 (주)케어리치 회장
박창길
우리은행 우이동지점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
우리은행 도로교통공단 지점
제일은행 응암동 지점
국민은행 남영동 지점
한익수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
김진호 바로코사 사장
이상철 용인대경호학과 학과장

화제의 인물

공포의 강력반 형사, 지금은 '피에로 강사'

인천 부평서 박용호 경사

강력반 형사시절 수많은 강도와 절도범 검거로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경찰이 최근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및 성범죄와 관련한 명강의를 펼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인천 부평서 경무계 소속 박용호(朴龍鎬) 경사.

그는 지난 86년 2월 무도 경찰로 공채에 합격,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반에 배치받아 3년 동안 '강도 잡는 형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피에로 경찰'로 더 유명하다.

강연 때마다 피에로 모자에 우스꽝스러운 분장, 화려한 복장 등으로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의 독특한 강연기법 때문.

천주교 신자인 그는 태권도와 유도, 격투기 등 총 10단의 뛰어난 무도 실력자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속한 강력반이 한해 동안 300여명의 주요 범인을 붙잡는 실적을 올린 가운데 박씨는 지난 81년부터 3년 연속 주요범인 검거실적 1위를 차지한 공로로 무궁화 봉사왕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95년 12월 국내경찰 중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지도자 2급 자격증을 획득, 이론과 실전을 겸한 강의를 시작해 최근에는 매달 10차례의 강연에 나서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청소년 강좌'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가 최근까지 관내 초,중,고교에 초청받아 강연을 한 횟수는 무려 160회.

박 경사의 봉사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틈만 나면 아내와 고등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지체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부평구 부개동의 '은광원'을 방문, 자원봉사활동도 펼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결국, 끊임없는 봉사활동으로 그는 98년 청룡봉사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박 경사는 강연 준비에 대해 "비록, 1시간의 짧은 강의시간이지만 복장과 분장, 수준별 강의내용 준비, 조명 확인 등 준비할 것도 많다"면서 " 결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야근을 하거나 근무를 조금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